

실내디자인 관련 연구의 경향 분석

- 1970년-1996년 실내디자인 관련 석·박사논문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Interior Design Research in Korea

- Focused on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published from 1970-1996 -

신화경 */Shin, Hwa-Kyoung

이수진 **/Lee, Soo-Jin

Abstract

Interior design, evolved from interior decoration of the 20th century, is one of environmental designs which contribute to the overall well-being of human life-physically, psychologically, and emotionally. Moreover, it is also a complex and multi-faceted profession that requires a strong understanding of not only human behaviors and the impact of the designed environment on them, but also of changing technologies and their potential effects.

Furthermore, design is a participatory process which requires the application of research, and theoretical knowledge to resolve issues addressing the society. Indeed, there has been various kinds of researches in the interior design field that came about. Through scrutinization of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this study intends us to grasp the current trend of interior design researches

Theses and dissertations related to interior design and architecture were the sources for this study. The subject of the analysis for this study was limited to the 560 titles of such like these, published from 1970 to 1996 by graduate schools related to interior design or architectu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Since the '80s, there had been active researches on the interior design field. The subject space had extensively been expanded in its area, especially in the case of commercial environment. The content of those researches had focused on space design with the intention of applying the results to hypothetical one.

키워드 : 실내 디자인 연구, 연구 경향

1. 서론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서의 실내디자인은 미국에서도 역사가 깊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약 3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다. 20세기 초 데코레이션에서부터 출발한 실내디자인은 물리적, 심리적 및 감정적 측면 등 모든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환경디자인의 한 부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실내디자인은 시대 변천에 따라 현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용어로 디자인 작업의 해석에 따라서는 실내건축(interior architecture)으로도 불리우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내디자인을 고도로 세분화된 전문적 작업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로 받아들여 인간 환경을 창조하는 행위에 관계되는 창조적 분야로서 인식하고 있다.¹⁾ 뿐만 아니라 디자인은 사회가 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의 적용과 이론적 지식을 응용해야 하는 과정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실내디자인어들은 실내 공간에 대해서 보다 기능적인 면의 해결과 함께 심미적 안목으로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디자인 결과까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²⁾, 인간의 행태와 디자인된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변화되는 기술 및 이들의 잠정적인 영향 또한 이해해야 하는 심리적인 안목 문제에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과 다학문적인 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체계를 지녀야 한다. 실제 이를 위해 디자이너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내디자인분야에서는 여러종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주로 홈데코레이션으로서 일반대중에게 실행되는 것을 시도로 한 실내디자인은 이제 단순한 초보단계를 벗어나 오늘날에는 상점을 비롯, 병원 등 다양한 환경을 담당하고 인간 환경을 창조하는 전문직으로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내디자인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궤도에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앞으로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예측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분석은 여러 방향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나 대학원 교육과 연구가 실내디자인을 전문직으로서 고양시키고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³⁾ 본 연구는 대학원의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정희원, 상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비자 주거학과 전임강사

** 정희원,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1) 오인욱^a (1995). 실내디자인 개론. 기문당.

2) 오인욱^b (1995). 실내 계획론. 기문당. p.12.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실내디자인 분야의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실내디자인분야에서의 관심 방향과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며,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실내디자인의 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분석 자료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실내디자인 및 실내 건축에 관련된 논문으로 이분야 대학원에서 1970년에서 1996년까지 나온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각 논문의 제목과 초록으로 제한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총 560부의 논문이었다.

2.2. 분석 방법

자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단순 빈도와 백분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즉, 자료는 크게 연구대상 공간의 특성과 연구 내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되었는데, 연구 대상 공간의 특성으로는 연도별 연구 대상 공간의 추이와 연구 대상 공간의 성격을, 연구 내용 특성으로는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의 성향을 분석하였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 분류 기준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 공간은 크게 주거공간, 상업공간, 기타 공간으로 분류하였다. 주거공간의 경우는 전통주택과 현대주택으로, 현대주택은 다시 현대주택 일반과 노인주택, 장애인 주택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상업공간은 사무실, 금융기관, 상점, 접객업소, 병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오락/문화공간, 공항/터미널 등으로 분류하였고, 다시 접객업소의 경우는 레스토랑과 호텔/모텔로, 교육기관은 유치원/놀이방,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기타교육 기관으로, 공공기관은 도서관, 박물관, 전시장, 교회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실내 디자인이 전문직으로서 정착이 되면서 그 디자인 대상 공간이 점차 다양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어, 5년 단위로 각 연구를 분류하여 연구 대상 공간별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셋째, 연구 대상 공간의 성격은 가상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실제 공간에 적용한 것인지의 2가지 속성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분석에 사용된 560개 논문의 연구 주제는 Kilmer(1992)의 'Designing Interiors'⁴⁾를 근거로 하여 디자인, 디자인 역사, 행태측면, 이론 등 4개의 대 범주로 나누고 다시 디자인은 공간, 색, 재료, 장식, 시설 설비, 디자인 기법, 전시 등 7개의 하부 범주로 나누었으며, 이론도 환경행태와 방법론, 범위 및 기준에 대한 이론, 기타 등 4개의 하부범주로 나누었다.

다섯째, 연구목적의 성향은 이론의 개발, 비교, 분석이 목적인가, 이

론을 근거로 응용을 검토한 것인가, 단순히 응용 지향적인 것인가의 3가지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여섯째, 가구와 창에 관한 연구주제는 공간별 구분없이 별도의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논의

분석된 논문의 91.7%가 주거 및 상업공간을 포함하는 환경적 측면에 관한 것이었으며 8.3%가 가구 및 창문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에 관한 논문에 역점을 두어 분석하기로 하였다.

3.1. 연구 대상 공간의 특성

3.1.1 연구 대상 공간의 연도별 추이

실내 디자인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실내 디자인 관련 연구에서 대상으로 선정하는 공간의 분포를 파악하였다.

연구된 공간 유형의 분포를 보면 <표 1>과 같이 상업공간이 56.8%로 주거공간 34.3%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상업공간의 경우를 보면, 접객업소(20.8%), 공공기관(18.6%), 교육기관(17.0%), 상점(15.7%) 순으로 많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객업소에서는 레스토랑(10.7%)과 호텔/모텔(10.1%)이 비슷하게 연구 대상이 되었으며, 교육기관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연구(8.8%)가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는 전시장에 대한 연구(9.7%)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교회와 같은 종교 건축물이 연구 대상(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 공간의 경우를 보면, 전통주택(9.4%)보다는 현대주택(90.6%)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주택에서 노인 주택 디자인에 관한 연구의 비중(14.6%)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는 초기 실내디자인이 주택에서 출발을 했지만 점차 다양한 상업공간까지 그 영향력이 확산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연도별로 살펴보기 위해 전체 560부 연구 논문을 1970년부터 각 5년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1970-1974년에는 실내 디자인 관련 연구가 전체 분석 대상 연구의 1.2%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5년-1989년에는 27.6%, 1990-1994년에는 45.2%로 급속한 양적 증가 경향을 보였다. 연구 대상이 되는 공간에 있어서도 1970년대 말까지는 상업 공간보다는 주거공간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았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상업공간과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주거공간의 경우를 보면, 노인주택 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198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여 90년대 초반에 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을 위한 주택에 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업공간의 경우를 보면, 소매상에 관한 디자인이나 병원 등 건강관련 시설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결과는 실내디자인의 전문성이 발달함

3)Thomson, Jo Ann Asher (1994). Professionalism in Interior Design for the 21st Century.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움. p27.

4)Kilmer, R. & Kilmer, W.O.(1992). Designing Interiors.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에 따라 연구 대상의 폭도 증가되어 오늘날 다양한 영역의 환경을 지원하는 전문직으로 접어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1〉 연도별 연구경향

공간의 종류	연도	연도						소계	%	증거
		1970~1974	1975~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7			
주거 공간	전통주택	1	4	3	5	5	18	9.4	192 43.3%	
	현대 주택	3	16	24	33	62	135	75.5		
	일반		2		8	16	26	14.6		
	노인							0.5		
	장애인							0.5		
상업 공간	사무실			4	11	6	1	22	6.9	318 70.7%
	금융기관				1	1	1	2	0.6	
	상점			6	13	25	6	50	15.1	
	점대점				8	25		34	10.7	
	점대점				10	11	2	23	7.1	
	호텔/모텔				3	12	2	17	5.1	
	병원				1	2	2	5	1.5	
	유치원/놀이방		1	5	8	3	1	18	5.1	
	교육 기관			1	2	7	1	11	3.5	
	대학교				1	1	4	7	2.2	
	기타			1	3	4		8	2.5	
	도서관				3	2		5	1.6	
	박물관				3	5	2	10	3.2	
	전시장		1	3	9	18		31	9.7	
	교회			1	3	5	1	10	3.2	
오락공간/문화공간				7	8	3	18	6.0		
공원/터미널				3	5		8	2.5		
기타		3	9	11	15	12	50	15.1		
계		7	25	77	154	253	44	560	100.0	

* 소계의 %는 각각 주거공간, 상업공간, 기타공간의 총계 192, 318에 대한 %임
** 총 560에 대한 %임

3.1.2. 연구 대상 공간의 성격

연구논문에서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공간의 성격을 실제공간과 가상적인 공간 두 부류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연구의 70.4%가 가상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연구의 29.6%가 실제 공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가상적인 공간의 경우나 실제 응용 경우에 있어서 모두 현대주택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예가 각각 27.4%, 22.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공간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 가상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연구대상공간에 대한 연구자의 적극적인 공간 탐색의 부족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연구 현실상 실제 공간을 대상으로 접근하기에 어려운 점이 내재되어 있다

〈표2〉 연구대상 공간특성

공간의 종류	내용	연구대상 공간의 특성			
		가상공간		실제 대상에 응용	
		f	%	f	%
주거 공간	전통주택	13	3.3	5	3.0
	일반	108	27.4	37	22.3
	현대 주택	19	4.3	9	5.5
	노인	1	0.2		
	장애인	1	0.2		
상업 공간	사무실	16	4.1	6	3.6
	금융기관	2	0.5		
	상점	47	11.9	3	1.8
	점대점	20	5.1	14	8.4
	점대점	22	5.6	10	6.0
	호텔/모텔	27	6.9	11	6.7
	병원	16	4.1	12	7.2
	유치원/놀이방	6	1.5	5	3.0
	교육 기관	2	0.5	5	3.0
	대학교	5	1.3	3	1.8
	기타	4	1.0	1	0.6
	도서관	5	1.3	5	3.0
	박물관	21	5.3	10	6.0
	전시장	9	2.3	4	2.4
	교회	16	4.1	3	1.8
오락공간/문화공간	1	0.3	7	4.2	
공원/터미널	34	8.6	16	9.7	
기타					
소 계		394	100.0 (70.4%)	166	100.0 (29.6%)
총 계		560 (100%)**			

* 총 560에 대한 %임

5) 박홍(1995). 실내디자인론. 기문당. p105.

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론의 적용 및 응용 측면에서 가상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실제성(實際性)을 전제로 하는 조건의 설정이 명백한 해답을 얻는 디자인의 한 과정이 되므로⁵⁾ 가상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실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디자인상의 고려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3.2. 연구 내용 특성

3.2.1. 연구 주제

연구된 내용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대상 논문을 크게 디자인 부문, 디자인사, 행태측면, 이론 측면으로 분류하였으며, 디자인 부문은 공간, 색, 재료, 조명, 장식, 시설설비, 기법, 전시에 관한 내용으로, 이론 부문은 환경행태, 방법론, 범위/기준 선정, 기타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3〉 연구 주제의 내용

공간의 종류	내용	디자인										소 계	%	증거		
		공간	색	재료	조명	장식	시설 설비	기법	전시	역사	행태				이론	방법론
주거 공간	전통주택	6	1	1		3					3	1			2	1
	현대 주택	68	7	2	4	12	7	1		3	20	15	2	3		
	일반	19									9	4				
	노인	1														
	장애인	1														
상업 공간	사무실	15									3			2		
	금융기관	2														
	상점	27	1	1	2				13	1		1	4			
	점대점	25	1	1	1				3	1		2	1			
	점대점	24	1					1					1	2		
	호텔/모텔	34											1	1		
	병원	26	1													
	유치원/놀이방	7	3		1											
	교육 기관	4												1		
	대학교	7														
	기타	4														
	도서관	7												1		
	박물관	23			2			1	2	1				2		
	전시장	10			1											
	교회	14			1						2					
오락공간/문화공간	6												2			
공원/터미널	11	3	1	2	3	1	3	1	3		2	7	2			
기타																
소 계		340	20	6	16	19	8	7	19		29	2	1	5		
계		782	16	4	27	44	18	16	43		37	42	14	7		
총 계		435 (77.7%)**										16	32	77 (13.7%)**		

* 소계의 %는 각각 디자인과 이론의 총계 435, 77에 대한 %임.
** 총 560에 대한 %임

연구된 내용을 살펴보면 디자인 부문이 77.7%로서 이론(13.7%), 행태(5.7%), 역사(2.9%) 등의 다른 영역보다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부문에서는 특히, 공간 전반에 대해 다룬 연구가 공간의 종류에 상관없이 대부분(78.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론 영역에서는 방법론에 관한 연구(48.2%)와 환경행태에 관한 연구(37.7%)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공간 중 일반 현대 주택의 경우에만 전시 부문을 제외한 공간, 색과 장식, 조명, 시설설비 디자인 등 디자인 부문에 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업공간의 경우에는 상점을 대상으로 공간 및 전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디자인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태에 관한 연구는 현대식 일반 주거환경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론 부문에서는 현대식 일반 주거를 중심으로 환경행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방법론, 범위/기준 선정 등에 대

한 연구는 특정 공간과 상관없이 여러 공간에 걸쳐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대상 공간의 경우 앞서 밝힌 바 있듯이 점차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나, 아직까지 각 공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주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실내 디자인이 전문 분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와 관련된 주제 전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3.2.2. 연구목적의 성향

연구논문이 의도하는 성향을 이론의 개발 및 비교, 분석 측면, 이론을 근거로한 응용측면, 그리고 순수 응용측면 등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는 <표4>와 같다. 즉, 응용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6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론을 근거로 한 응용검토가 29.1%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론 개발, 비교, 분석을 위한 연구는 단지 6.1%에 지나지 않아 창조적인 사고와 함께 실내 디자인이 학문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이론 정립의 미진한 면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응용부분에서는 일반 현대주택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19.0%), 다음으로 접객업소(13.5%), 상점(9.6%)과 병원(9.1%)의 응용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이론을 근거로 한 응용검토 연구에서도 일반 현대주택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39.9%), 다음으로 접객업소(9.2%), 상점 (8.6%)과 노인주택(6.8%) 순으로 나타났다. 이론 연구에서도 일반 현대주택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32.4%), 다음으로 전통주택(11.8%), 오락공간/문화공간(8.8%), 레스토랑(5.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 목적이 응용에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공간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론을 근거로 한 응용 검토도 어느 정도 다양한 공간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론의 정립, 분석 측면은 다른 측면에 비해 절대적인 수에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대상으로 하는 공간도 일부 공간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내디자인을 위한 지식 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학제내의 지속적인 이론 연구 및 개발이 요구된다

<표4> 연구목적의 성향

공간의 종류	내용	연구목적의 성향						
		이론		이론을 근거로 한 응용		응용		
		f	%	f	%	f	%	
주거 공간	전통주택	4	11.8	10	6.1	4	1.1	
	현대 주택	일반	11	32.4	65	39.9	69	19.0
		노인	11		6.8		17	4.9
		장애인					1	0.3
상업 공간	사무실			7	4.3	15	4.1	
	금융기관					2	0.6	
	상점	1	2.9	14	8.6	35	9.6	
	접객업소	레스토랑	2	5.9	8	4.9	24	6.6
		호텔/모텔			7	4.3	25	6.9
	병원			5	3.1	33	9.1	
	교육 기관	유치원/놀이방			2	1.2	26	7.2
		초/중/고등학교			1	0.6	10	2.7
		대학교	1	2.9	2	1.2	4	1.1
	공공 기관	기타					8	2.2
		도서관					5	1.4
		박물관			4	2.5	6	1.7
		전시장	1	2.9	5	3.1	25	6.9
		교회			2	1.2	11	3.0
		오락공간/문화공간	3	8.8	2	1.2	14	3.8
	공항/터미널			2	1.2	6	1.7	
	기타	11	32.4	16	9.8	23	6.3	
소 계		34	100.0 (6.1%)*	163	100.0 (29.1%)*	363	100.0 (64.8%)*	
총 계			560 (100%)**					

* 총 560에 대한 %임

4. 결론

실내디자인 연구는 연구 내용면에서는 디자인과 이론, 행태 및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 사회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특정 측면에 편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실내디자인이 인류의 복지에 관여한다는 측면에 보다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편중되어 나타나는 일부 연구 경향에서 탈피한 보다 다방면의 연구가 요구된다.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는 공간의 종류는 70년대초 주택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다양한 공간으로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주택뿐 아니라 대부분의 상업공간 등 거의 모든 인간 환경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연구대상 공간의 특성은 주로 가상적 공간에 연구 결과를 적용하려는 공간 디자인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실감 있는 실제 공간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아직은 우리나라의 실내디자인 연구가 모든 부분에서 만족할만한 상태라고 진단하기는 어렵고, 연구가 실제 실내디자인 업무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수는 없으나 이들 연구 성향을 통해 현재의 실내디자인은 주택과 상업공간 등 모든 인간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으로부터 분리되어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 오늘날에는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는 전문적으로 자리를 굳혀져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보다 동적인 실내 디자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 대상 공간의 성격, 연구 주제, 연구 목적 성향 등의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봄으로써 실내 디자인 연구의 경향을 깊이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가 자료로 분석한 석·박사 학위 논문 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 관련 연구를 실행하고 있는 학회지, 학술지 등에 대한 분석으로 연구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박홍(1995). 실내 디자인론. 기문당.
2. 오인옥a(1995). 실내디자인 개론. 기문당
3. 오인옥b(1995). 실내 계획론. 기문당.
4. 유영배(1988). 실내환경 디자인. 월간디자인 출판부
5. 윤도근, 유희준 역(1994). 실내건축 디자인. 기문당
6. 최정실, 김대년(1994). 인테리어 디자인. 문운당
7. Kilmer, R. & Kilmer, W.O.(1992). Designing Interiors.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8. Thompson(1994). Professionalism in Interior Design for the 21st Century. 21세기 사회에서의 주택과 실내디자인 전문직.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 1994.10.28
9. White, A.C. & Dickson, A. W.(1994). Practitioners' perceptions of Interior Design. Graduate education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Journal of Interior Design. 20(1) pp. 27-35.

<접수 : 1997. 8. 6>